5 주(2010.10.11):

사르트르의 시선과 타자

I. 시작하면서

* 타자의 문제 : 서양의 담론사는 일자(一者)의 타자(他者)에 대한 폭력의 역사(데리다);
* 사르트르의 타자론 : 『존재와 무』의 제 3 부; 타자 연구에서 선구자; 들뢰즈는 『의미의 논리』에서 사르트르의 타자론을 서구의 철학사상 타자에 대한 최초의 위대한 이론이라고 높이 평가; 그러나 너무 일찍 잊혀짐; 그 이후 타자 논의에서 다시 부활; 사르트르 뒤에 오는 이론들을 '아류화(亞流化)'시켜버릴 정도로 강력한 이론;
* 라캉, 레비나스 등의 타자론; 메를로퐁티, 푸코 등의 신체론과의 비교 가능성;
* 주제 : 시선, 타자, 신체;

II. 존재의 세 영역 : 나, 사물 그리고 타자

II.1. 존재의 두 영역

* 의식(conscience)의 유무를 기준으로 크게 두 개로 분류;
* 대자존재(l'être-pour-soi)와 즉자존재(l'être-en-soi)가 그것;

> 이렇게 해서 우리는 '나타남'에서 출발하여 점차 즉자와 대자라고 하는 두 가지 전형적인 존재를 정립하기에 이르렀다. 이 즉자와 대자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 피상적이고 불완전한 지식밖에는 가지고 있지 못하다. 수많은 문제들이 아직 해답 없이 남겨져 있다. 이 두 가지 전형적인 존재들이 지닌 깊은 '의미'는 무엇인가? 무슨 이유로 그것들은 양편 모두 일반적으로 '존재'에 속하는가? 존재가 자기 속에 근본적으로 단절된 존재의 이 두 영역들을 품고 있는 한도에서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가? 만일 관념론과 실재론이 다 이론상으로는 교통이 불가능한 이 영역들을 사실상 결합해주는 여러 관계들을 설명할 수 없다면, 사람들은 이 문제에 다른 어떠한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현상의 존재가 초현상적일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답하기 위해 이 책을 쓴 것이다.

II.2. 존재의 제 3 영역

* 존재의 제 3 영역 : 타자
* 수치심 : 타자를 전제; 대타존재(l'être-pour-autrui);
* "타자의 존재에 관한 문제"와 "나와 타자와의 관계 문제"로 구분 :

> 그와 동시에 나는 나의 존재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타자를 필요로 한다. '대자'는 '대타'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인간과 즉자존재와의 존재 관계를 그 전체 속에서 파악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책의 앞의 장(章)들에서 소묘한 기술들로서는 만족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아주 다른 의미로 놀라운 두 문제에 답을 해야 한다. 첫 번째 문제는 타자의

존재 문제이며, 두 번째 문제는 타자의 존재에 대한 나의 '존재' 관계의 문제이다.

III. 시선과 타자

III.1. 시선

* 타자 = "나를 바라보는 자(celui qui me regarde)";
* 헤겔, 후설, 하이데거 등의 이론을 주로 검토하고 특히 이들의 이론이 "유아론(solipsisme: 唯我論)" -실재하는 것은 오직 자아와 그의 의식뿐이며 다른 것은 자아의 관념이거나 자아에 대한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철학적 입장- 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
* 두 가지 예

> (예-1) : 나는 지금 어느 공원에 있다. 내게서 멀지 않은 곳에 잔디밭이 있고, 이 잔디밭을 따라서 의자들이 놓여 있다. 이 때 한 사람이 의자 옆을 지나간다. 나는 이 사람을 본다. 나는 그를 하나의 객체로서, 그리고 동시에 한 명의 인간으로서 파악한다. 그것은 무엇을 말함인가? 또 내가 이 인간을 한 명의 인간이라고 말할 때, 나는 무엇을 말하고자 함인가?

> (예-2) : 내가 가령 질투심에 불타서, 관심을 가지고서, 또는 못된 버릇 때문에 문에 귀를 대고 자물쇠 구멍으로 안을 들여다본다고 상상해보자. (.....) 그런데 갑자기 나는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누군가에 의해 바라보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예-1) : '인형-객체'로 취급할 경우 : 시간적, 공간적 범주들을 적용; 단순히 덧붙여지는 관계; 새로운 관계가 나타나지 않음; 소멸시킬 수 있음;
* 인간과 같이 취급할 경우 : 그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세계의 형성; 그 극점을 향해 유출; 나는 점차 세계의 중심 위치를 상실; 인간의 출현 = 나의 세계를 훔쳐가는 하나의 특수한 존재가 나타남을 의미; 타자의 출현 = 나의 세계 속에 생긴 "하나의 작은 균열"; 이 균열을 통해 나의 세계가 흘러나감; "배수공"; "내출혈"; 다만 다시 고정시켜 원상태로 회복 가능;
* (예-2) 내가 타자에 의해 바라보인 경우 : 내출혈이 끝이 없음; 나의 세계의 해체 완료; 다른 사람의 세계가 나의 세계 위에 와서 겹침; 상황의 주인 자격을 유지할 수 없음; 다른 존재들과 마찬가지로 거리를 부여받는 사물, 즉 객체의 자격을 부여받게 됨;
* 나의 즉자존재의 모습 = 바라보인-존재(mon être-vu)"은 나의 가능성이 아님; "카드의 안쪽"의 의미에서 타자의 "자유의 안쪽" = 나의 "자유의 한계"; 정체와 무게를 알지 못한 채 내가 짊어져야만 하는 "짐";
* 시선은 타자의 나에게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이 현전을 가능케 해주는 개념;

III.2. 신체

* 신체의 의미
- 인간 = 세계-내-존재; 세계-내-존재의 존재태 = 신체

- 이런 의미에서 신체는 관점 point de vue) = 세계에 대한 우연한 관점;
- 신체 = “나의 우연성의 필연성이 취하는 우연적인 형태” :
- a) 나의 이 세계의 출현은 우연적이다.
- b) 이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하나의 관점을 취해야만 한다 => 필연적이다.
- c) 이 세계에 대해 관점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신체’인 것은 우연하다.

* 타자의 시선 하에 놓이는 것은 신체:
* 「한 지도자의 유년 시절」 : 뤼시앵이라는 인물;
- 학교에서 항상 맨 뒷자리에 앉고 싶어 함; 근질거리는 느낌;
- 집에서 하녀 제르멘느(Germaine)가 열쇠구멍으로 들여다본다고 상상하는 장면 :

> 아침에 목욕탕에서 어른처럼 혼자 몸을 씻고 있을 때, 코스틸, 불리고 영감, 제르멘느 등이 열쇠구멍으로 엿보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 보았다. 그러면서 뤼시앵은 어느 쪽이라도 볼 수 있게 이리저리 몸을 돌려대고 엉덩이를 문 쪽으로 내밀어, 그것이 불룩 나와서 우습게 보이도록 네 발로 엎드리곤 했다. 부파르디에씨가 몸을 씻겨 주려고 살금살금 다가오는 장면도 생각해 봤다.

* 타자의 시선 앞에 자기의 신체를 직접 드러내기도 함;

> 어느 날 화장실에 있을 때 삐걱대는 소리가 들렸다. 제르멘느가 복도의 찬장을 닦고 있는 것이었다. 심장의 고동이 정지한 것 같았다. 그는 화장실 문을 살며시 열고 나왔다. 바지를 질질 끌면서 엉덩이를 드러낸 채 넘어지지 않고 걸으려고 깡충깡충 뛰어야 했다. 제르멘느는 의연한 눈초리로 그를 쳐다보았다.
> “어머나! 도련님은 자루를 끼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 그는 부리나케 바지를 추켜올리며 침대로 가서 쓰러졌다.

* 나의 시선 하의 타자 신체 => ‘대상-신체’;
- 엄마가 목욕하는 장면을 훔쳐봄:

> 뤼시앵은 제 몸이 보이지 않는다고 상상하는 것이 즐거웠다. 그리고 복수를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무심결에 어떤 짓을 하고 있나 알아보기 위해서 열쇠 구멍으로 엿보는 버릇이 생겼다. 그는 어머니가 몸을 씻는 장면을 보았다. (.....) 그러나 그 동안에도 어머니는 여전히 장밋빛 살덩어리였다. 사기 세척기 위에 앉아 있는 묵직한 육체였다.

III.3. 나와 타자와의 갈등

* 승격과 강등 : 객체성-->주체성; 주체성-->객체성으로의 위치 변화;
* 시선은 ‘힘(puissance)’ : 화석화(pétrification: 化石化)시켜버리는 메두사(Méduse)의 눈초리;

> 사실 내가 보는 사람들을 나는 객체로 응고시킨다. 나의 그 자들에 대한 관계는 타자의 나에 대한 관계와 마찬가지이다. 그들을 보면서 나는 나의

힘을 계량한다. 그러나 타자가 그 사람들을 보고, 그리고 나를 본다면, 나의 시선은 그 힘을 상실한다.

* "바라보인-존재(l'être-regardé)" ---> "바라보는-존재(l'être- regardant)"로의 변화 : "승격(transfiguration)";
* "바라보는-존재"---> "바라보인-존재" : "강등(dégradation)"
* 나와 타자는 주체성의 존재: 따라서 나의 관심은 타자를 객체화시키는 것 :

그러므로 나의 계속되는 관심은 타자를 그의 객체성 속에 담아두는 일이다. 그리고 객체-타자와 나와의 관계들은 본질적으로 타자를 객체로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한 계략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계략들이 무너져버리고 내가 다시 타자의 변모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타자의 시선이 하나 있으면 충분하다.

* 타자는 "위험한 폭발물" :

"이처럼 객체-타자는 내가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폭발성이 있는 도구이다. 그 까닭은 이렇다. 즉, 나는 이 객체-타자 주위에서 '사람'들이 그것을 폭발시킬 수도 있는 끊임없는 가능성, 그리고 이 폭발과 더불어 갑자기 세계가 나의 밖으로 도피하며, 나의 존재가 소외되는 것을 체험할지도 모른다는 끊임없는 가능성을 예감하기 때문이다."

* 갈등 : 타자는 "함께 있는 존재(Mitsein)"가 아님; 나에게 "협력하기(mitmachen)"를 거절;

* 단편 「벽」의 경우;
- a) 화자인 파블로 이비에타는 톰, 후안과 더불어 포로가 됨; 사형 선고를 받고 새벽에 처형될 운명; 파블로는 자기기만적인 태도로 꿋꿋하고 깨끗하게 죽어가고 싶어 함; 하지만 벨기에 의사가 그곳 감옥을 방문한 이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짐; 시선의 갈등;

나는 말을 계속하려 했다. 그러나 갑자기 나를 놀라게 하는 일이 일어났다. 이 의사의 존재에 대해 갑자기 관심이 없어진 것이다. 평소에는 한 사람을 공격하면, 결코 놓치는 법이 없었는데.

그러나 이젠 말하고 싶은 욕망조차도 사라졌다. 나는 어깨를 으쓱하고 시선을 돌렸다.
잠시 후 고개를 돌려보니, 그가 호기심에 찬 시선으로 나를 관찰하고 있었다 (.....)

나는 한참 동안 석유등이 천장에다 그리는 둥그런 빛을 바라보았다. 나는 매혹되었다.

그러다 갑자기 깨어났고, 둥그런 빛도 사라졌다. 엄청난 무게에 짓눌리는 느낌이었다. 그것은 죽음에 대한 생각도 두려움도 아니었다. 그것은 익명의 그 무엇이었다. 나는 광대뼈가 쓰라렸고 머리통도 아팠다.

- b) 파블로 : '바라보는-존재'에서 '바라보이는-존재'로 강등;

그는 냉랭한 눈빛으로 계속해서 날 쳐다보았다. 갑자기 나는 알아차렸다. 얼굴에 손을 갖다 대었다. 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한겨울에, 바람이 이렇게 불어대는 지하실에서 땀을 흘리고 있었던 것이다.

머리카락 속으로 손을 넣어보니 역시 땀에 젖어 있었다. 동시에 셔츠도 흠뻑 젖어 살갗에 달라붙어 있었다. 적어도 한 시간 전부터 땀을 뻘뻘 흘렸으면서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이 사실을 저 돼지 같은 벨기에 녀석이 놓칠 리가 없었다. 그는 내 뺨에 땀방울이 흐르는 걸 보고 거의 병리학적인 공포의 표시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자신은 정상적이라고 느끼며 추위를 느낀 자신에 대해 자랑스러워했을 것이다.

- C) 결과 : 파블로 -> 톰과 후안과 닮았다고 생각하게 됨;

그런데 지금 우리는 단지 함께 죽어간다는 이유만으로도 쌍둥이처럼 닮아 있는 것이다.

그(=Tom)는 내게 말하는 것 같았지만, 나를 보지는 않았다. 아마도 잿빛 얼굴을 하고 땀을 흘리고 있는 나를 보기가 두려웠나 보다. 우리는 닮은꼴이었으며, 서로를 쳐다보는 게 거울을 쳐다보는 것 이상으로 지긋지긋했다. 그는 살아 있는 사람인 벨기에 녀석을 쳐다보았다.

III.4. 시선에 대한 극단적인 반응

* 타자의 부재 상황에서조차 타자의 시선을 느낌 :

나는 뒤에서 누군가가 내게 손대는 것이 딱 질색이다. 등 따위는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볼 수도 없는 사람이 내게 수작을 부리는 것을 나는 싫어한다. 그들은 제멋대로 농을 걸 수도 있고, 게다가 그들의 손은 보이지 않는다. 손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을 느낄 수는 있지만, 어디로 향하는지는 알 수 없다. 그들은 얼마든지 우리를 바라보지만 우리는 그들을 볼 수가 없다.

* 타자가 나를 전혀 바라볼 수 없는 상태에서 타자를 일방적으로 바라보고자 함 :

당신은 니스의 내 별장으로 와야 해. 별장은 하얀색인데, 대리석의 계단이 있고, 바다를 향해 있으며, 우리는 온종일 벌거벗고 살 것이라고 그가 말했다. 벌거벗고 계단을 올라가다니 참 우습기도 하지. 나를 볼 수 없도록 그를 반드시 앞장세우고 말테다. 그렇지 않고는 발 하나 올려놓을 수도 없다. 나는 꼼짝도 하지 않고 그가 눈이나 멀었으면 하고 기도할테다.

* 신 : 영원히 객체화되지 않는 시선;
* 높은 곳에서 보내는 시선 :

사람이란 위에서 굽어보아야 하는 법이다. 나는 불을 끄고 창가에 기대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위에서 내려다보인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앞을 단정하게 꾸미고 때로는 뒤도 살피지만, 그 모든 효과란 1m 70cm 키의 구경꾼들을 위해 꾸며져 있을 뿐이다. 누가 도대체 7 층에서 내려다보이는 실크햇의 모양에 주의를 하겠는가? 그들은 어깨와 머리를 짙은 색과 호사한 옷감으로 방어하는 것을 게을리 한다. 그들은 인간의 이 커다란 적, 즉 수직으로 떨어지는 시선과 대적할 줄을 모른다.

* 옷을 입는다는 것 :

"여자는 쑥스러운 몸짓으로 이리저리 서성거리기 시작했다. 벌거숭이가 되어 걷는 것보다 여자를 더 거북하게 하는 것도 없다. 그들은 발꿈치를 땅에 붙이는 법이 없다. 창부는 허리를 구부리고 팔을 늘어뜨리고 있었다. 한편 나로 말하면 대단히 기분이 좋았다. 나는 그곳 안락의자에 조용히 앉아 목까지 옷으로 휘감고 장갑까지도 끼고 있었다. 이 무르익은 여자는 내 명령대로 온통 벌거숭이가 되어 내 주위를 맴돌고 있는 것이다.

III.5. 타자의 두 가지 존재론적 지위

* 타자 : 지옥과 필수불가결한 매개자
* 타자는 나의 지옥(L'enfer, c'est les autres) :

가르생 - 나를 잡아먹을 듯한 이 시선들... (.....) 아! 당신들은 두 명뿐이었는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웃는다.) 이것이 지옥이지. 전에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었지... 당신들도 기억하겠지. 유황, 장작더미, 쇠고챙이... 아! 웃기는 얘기야. 쇠꼬챙이 같은 것은 필요 없어. 지옥 그것은 타인들이야."

* 타자는 나의 필수불가결한 존재(médiateur indispensable entre moi et moi-même) :

무엇이건 나에 관하여 어떤 진실을 얻으려면 나는 타자를 통과해야만 한다. 타자는 나의 존재에 필수불가결하다.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나에 대해 가지는 인식에서도 마찬가지이다.

* 타자는 나의 존재근거를 담고 있는 자 :
* 그가 본 “나의-바라보인-존재” : 나의 “외부”; 나의 “본성”; 나의 “비밀”;

> 한 명의 타자가 존재한다면, 그가 누구이건 간에, 그가 어디에 있건 간에, 그의 존재의 단순한 출현에 의해서 그가 나에게 달리 작용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의 외부를 갖게 된다.
>
> 타자는 하나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 이 비밀은 내가 무엇인지에 관한 비밀이다. 타자는 나를 존재케 하며, 바로 이러한 사실로 인해 나를 소유한다. 이 소유는 그가 나를 소유한다는 의식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 (.....) 나에게 있어서 타자는 나의 존재를 훔쳐가는 자이다.

* 타자에 의해 근거지워진 존재 = 나의 즉자존재= 나의 근거;
* 나 => 대자-즉자의 결합을 실현;

III.6. 나의 타자에 대한 상반된 두 가지 태도

* 제 1 태도 : 타자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내게로 흡수하려는 태도 : 동화의 태도;
* 제 2 태도 : 타자를 짓누르고 객체화시킬려고 하는 태도 : 객체화의 태도;

> 타자는 ‘나를 바라보는 자’이다. 그리고 그러한 자로서 타자는 나의 존재의 비밀을 붙잡고 있다. 타자는 내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해서 타자 존재의 심오한 의미는 나의 외부에 있고, 하나의 부재 속에 사로잡혀 있다. 타자는 나에 비해 우세하다. 그래서 나는 내가 그것으로 있으면서 그것을 근거짓지 못하는 즉자를 도피하는 한도에서, 바깥으로부터 나에게 부여되어 있는 이 존재를 부인하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나는 이번에는 내 편에서 타자에게 객체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타자 쪽으로 돌아서서 바라볼 수가 있다. 그 까닭은 타자의 객체성은 타자에게 있어서의 나의 객체성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자유로서의 타자가 나의 즉자존재의 근거인 한도에서, 나는 타자로부터 자유라고 하는 것의 성격을 제거함이 없이 이 자유를 되찾고, 이 자유를 탈취하려고 할 수가 있다. 만약 실제로 내가 나의 즉자존재의 근거인 이 자유를 나의 것으로 할 수가 있다면,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나 자신의 근거가 될 것이다. 타자의 초월을 초월하는 것, 이와는 반대로 타자로부터 초월이라고 하는 그 특징을 제거함이 없이 이 초월을 내 속으로 삼켜버리는 것, 바로 이것이 내가 타자에 대해서 취하는 두 개의 원초적인 태도이다.

* 이 두 태도를 중심으로 타나와 타자 사이에 맺어지는 “구체적 관계들”을 기술;
* 제 1 태도를 중심으로 맺어지는 관계 : 사랑-언어-매져키즘;
* 제 2 태도를 중심으로 맺어지는 관계 : 사디즘-성적욕망-무관심; 증오(= 타자의 살해를 기도하는 것 = 제 3 태도);
* 모두 실패 : 무용한 정열;

이처럼 증오의 승리는 그것의 출현 자체에 있어서 실패로 바뀐다. 증오도 이 타자와의 이 순환으로부터 탈출을 우리에게 허용해주지 않는다. 증오는 단순히 궁극적인 시도, 그리고 절망적인 시도를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이 시도의 실패 후에 대자에게는 다시 이 순환 속으로 들어가는 일, 그리고 두 개의 기본적인 태도들의 한편으로부터 다른 한편으로 끝없이 왔다갔다 하도록 내버려두는 일밖에는 더 이상 남아 있지 않게 된다.

III.7. 유희와 코메디

* 타자가 갖는 강력한 존재론적 힘으로 인해 내가 타자에게 그려지는 나의 이미지에 부합하기 위해, 또는 거절하기 위해 벌이는 연기와 코메디(Cf. 제 4 의 태도);
* 여러 직업의 인물 :

방금 그는 낮에 피는 리즈롱꽃처럼 멍하고 시적인 모양으로 권련을 한 대 피우고 있었다. 이제 그는 깨어났다. 그는 약간 지나치게 바텐더였다. 칵테일 쉐이커를 흔들고, 뚜껑을 열고, 유리잔에 노란 거품을 흘려보내고 있었다. 약간 지나치게 정확한 몸짓으로. 그는 바텐더 놀이를 하고 있었다.

* 거울 놀이 :

에스텔 – 말할 때 나는 여섯 개 거울 가운데 한 개를 내 모습을 비추어볼 수 있도록 맞추어 놓았지요. 나는 말을 하고, 이러한 나의 모습을 마치 다른 사람들이 보는 듯이 보곤 했지요. 이렇게 하면 정신이 번쩍 들게 되요.

* 타자로부터 좋은 이미지를 받기 위한 희극
* 타자에 의해 그려지는 이미지의 수용과 거부

IV. 나가면서

* 나와 타자는 갈등의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 사르트르의 도덕론
* 다른 철학자들(라캉; 메를로 퐁티; 푸코; 레비나스 등)의 타자 이론과 신체 이론의 비교 검토;
* 다른 작가들의 작품에의 적용 가능성;